

전통음식에 대한 인식, 선호도, 상품화에 대한 의식 조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김행란* · 이연경 · 김경미 · 한귀정 · 김태영 · 김양숙 · 정용선¹ · 정인경²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¹경북도농업기술원, ²중앙대학교 가정교육과

경북 지방은 한반도의 남부에 위치하여 해안, 평야지, 산간지가 고루 분포되어 있어 다양한 먹거리 재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경북 북부 지역은 유교문화의 중심 지역으로 시절식이나 각종 의례, 의식, 풍습과 관련된 특색있는 음식이 다양하게 발달하였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현재 경북에 거주하고 있는 주부들의 전통음식에 대한 의식을 조사하여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전통음식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대구·경북지역 25개 시·군 442명의 향토음식연구회원, 솜씨보유자 및 일반 주부 등을 대상으로 2004년 5월부터 7월까지 전통음식에 대한 인식정도, 선호도, 상품화에 대한 의견 등을 설문조사하였다. 경북지역 주부들의 '전통음식'에 대한 상징용어로는 식혜 > 떡 > 한과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안동식혜와 헛제사밥 등 지역음식을 상징용어로 제시하였다. 관심도, 만족도, 긍정적 인지도는 4.0점(5점 likert 척도)으로 매우 높았으며, 긍정적 인지도는 학력, 관심도, 만족도, 학습의지, 지역음식 이용횟수와 유의적인 상관성을 보였다. 전통음식 구입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으로 대부분 원료의 안전성(위생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구입하여 이용하는 품목은 것갈류 > 묵·두부류 > 한과류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통음식의 상품화 방향은 그대로가 37.5%, 영양과 기능성 부각이 30.5%로 높게 나타났다. 경북지역은 전통음식에 대한 의식이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이러한 경향과 관련된 요인에 대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 담당자 : 김행란

* Tel : 031-299-0590

* 휴대전화 : 016-303-2186

* Fax : 031-299-0553

* E-mail : kimhr@rda.go.kr